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3. 5. 11.(목) 11:00,
(지면) 2023. 5. 12.(금) 조간

배포 2023. 5. 11.(목) 06:00

2023년 전환교통 지원사업 협약사업자로 (주)포스코 등 18개 업체 선정

- 화물 육상운송을 친환경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하여 이산화탄소 감축 기대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'2023년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'의 협약사업자로 (주)포스코, 현대제철(주), 일신해운(주) 등 18개 업체를 선정*하고, 5월 12일(금) 협약을 체결한다.

* 업종별로는 화주사 5개사, 종합물류회사 1개사, 해운선사 12개사

전환교통 지원사업은 연안해운 운송 비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, 도로 운송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.

이번 협약을 통해 12개의 연안해운 운송 노선이 새롭게 개설될 예정이며,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되는 약 100만 톤의 물량에 대해 27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.

해양수산부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약 14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여 물류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또한, 도로 혼잡, 사고, 소음, 분진 발생 등이 줄어들어 약 430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.

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"이번 협약 체결로 저탄소 녹색교통 물류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것은 물론, 연안선사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선·화주 간 상생관계를 공고히 하게 되길 바란다."라고 말했다.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해운물류국 | 책임자 | 과 장 | 도경식 (044-200-5730) |
| | 연안해운과 | 담당자 | 사무관 | 윤현석 (044-200-5735) |

참고

전환교통 사업개요

□ **[목 적]**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운송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물류의 친환경화 유도

□ **[근 거]** 「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」 제21조*, 시행령 제21조~제24조

* 전환교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물류운영자 및 교통물류이용자, 화주 등과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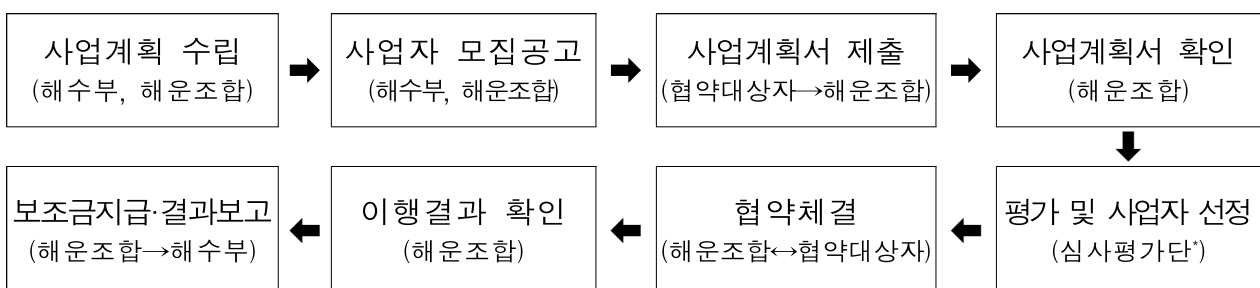
□ **[신청자격]** 교통물류운영자(선사), 교통물류이용자(화주 등)

□ **[사업기간/예산]** 2010년~계속 / 2,700백만원('23년)

□ **[사업내용]** 도로운송에서 연안해송으로의 전환 또는 신규로 연안해송한 협약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송과 육송 운임차액과 사회환경적 비용 절감액*(30%한도) 중 적은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

* 대기오염·온실가스·소음·교통혼잡 등 물류산업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적 요인을 비용으로 수치화 한 금액으로써 1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연안해송으로 수송수단을 전환하여 1km 운송하는 경우 55.36원 절감 가능

□ 사업추진 절차



* 해양수산부, 해운조합, 해운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 총 6명으로 구성

- **[협약사업자 선정]** 2. 13.~3. 3. 공모 및 4. 4. 전환교통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6개 컨소시엄과 1개 업체 선정

| 구분 | 업체 | 노선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컨소시엄 | 포스코 - 동방·케이엠씨해운·일신해운 | 포항-울산 등 9개 |
| | 현대오일뱅크 - 케이엠씨해운 | 대산-울산 등 4개 |
| | 현대글로벌비스 - 금진해운·현대해운·금양상선 | 당진-울산 등 4개 |
| | 현대제철 - 인트란스·대주중공업 | 동해-당진 |
| | 에이엠알지코리아 - 현대해운 | 군산-광양 등 2개 |
| | 알엠 - 자원해상물류 | 당진-광양 |
| | 에스씨엘로지스 | 부산-동해 등 3개 |

- **[기대효과]** 약 14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여 물류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, 약 430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

<한국교통연구원 분석방법으로 산출>

지원물량 100만 톤의 운송거리 고려 시 수송량은 약 780백만톤·km로 추정

* 도로운송을 연안해운으로 전환하여 1백만톤의 화물을 싣고 1km를 운송할 경우 약 176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→ 780백만톤 운송 시 약 14만톤 감축

** 도로운송을 연안해운으로 전환하여 1백만톤의 화물을 싣고 1km를 운송할 경우 약 55백만원의 사회적비용 절감 → 780백만톤 운송 시 약 430억원 절감

- **[그간의 성과]**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,764만 톤의 화물을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하여 약 426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, 1조 3천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 절감 성과 달성